

광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AI기업 유치 마중물

20PF 고성능 컴퓨팅 전용 구축
66.5PF 민간기업 생태계 조성 활용
민간기업 광주로 이전 러시 주도

광주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 구축 중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국내외 AI 전문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기존 연구중심의 고성능 컴퓨팅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을 결정한 게 기업 유치에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광주 첨단 3지구에 3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사업비 가운데 2100억원은 민간 참여자인 NHN이 투자한다.

컴퓨팅 연산 능력 88.5PF(페타플롭스), 저장용량 107PB(페타바이트)를 구축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88.5PF는 1초에 8경 8500조번의 부동(浮動)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연산 능력 기준으로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인 한국 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누리온 5호기의 25.7PF(2010년 11월 기준 세계 21위)보다 뛰어난 세계 7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NHN은 다만 애초 설계된 88.5PF 중 20PF만을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HPC) 전용으로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66.5PF는 AI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고성능 컴퓨팅 20PF는 실측성능만 놓고보면, 세계 23위에 해당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글로벌케이, ㈜씨엔에스컴퍼니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및 국가보안 전문 시설인 대전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내 누리온 5호기로는 AI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에는 연구기능과 더불어 AI기업이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공간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누리온 5호기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집약한 연구중심 시설로, 민간 기업의 접근이나 활용도가 낮은 탓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AI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는 국내외 AI전문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연구기능과 함께 민간기업 지원에 최적화

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데이터센터 오픈에 맞춰 민간기업과 함께 데이터·AI기술 융합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로봇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NHN도 2023년 데이터센터 구축과 동시에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를 광주에 설립하고 자사는 물론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지원형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이 확정되면서 국내외 AI기업의 광주행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글로벌

케이, ㈜씨엔에스컴퍼니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88-89번째 인공지능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 기업은 광주에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하고,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AI데이터센터에 모이는 데이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돼 각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클라우드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광주로 이전한 AI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발전해 지역 경제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주택 공급·개발 사업 주거정책 심의 거쳐야

도시기본계획에 '아파트 30층 이하' 층수 제한 기준도 마련

앞으로 광주에서 주택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택지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연구개발 특구 개발 등 사업 중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도록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막고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이 곤연한 아파트 30층, 주거복합건축물 40층 이하 층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 도시계획·경관·

건축 등 위원회에서 단지 특성, 높이, 경사 등을 고려한 기준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층수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적용 사례도 공유했다.

광주시는 내년 7월까지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별 층수(높이) 기준을 담고 무등산권, 도심권, 하천변 등 특정 지역은 도시경관 계획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광주시가 협업해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안전도 의결했다.

LH는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갤러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문 상담 기관인 마이홈 센터를 통합 이전해 광주 도시공사와 함께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미래성장동력 바이오산업 발굴 정부에 건의

친환경 K-방역 항바이러스성 종자산업 등 4건

전남도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친환경 K-방역 항바이러스성 종자산업 고도화 혁신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할 고도화 기획과제 4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도화 기획과제는 정부 공모과제와 신규 국비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바이오·의약 분야 신산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역 대학과 전문가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과제를 제안받아 평가를 거친 후 최종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새로 발굴한 과제는 총사업비 41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이다. 정부 바이오산업 정책에 맞춰 전남 천연자원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개 과제는 ▲전남대 농식품생명공학부의 친환경 K-방역 항바이러스성 종자산업 고도화 혁신플랫폼 구축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의

전남 천연자원의 생물 전향 바이오산업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친환경농업 품목 다변화를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제조 활성 유기농자재 개발 ▲전남대 약학대학의 신변경 감염병 대응 K-헬스케어 천연물소재 개발 등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선정된 4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정부 방항에 맞춰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 건의를 통해 2022년 정부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15년부터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사업 등 총 40건의 바이오산업 고도화 기획과제를 발굴해 총사업비 1200억원 규모(국비 645억원)의 국비 사업을 수주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 e모빌리티 강소기업 집중 육성과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등을 통해 체계적인 e-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모빌리티 부품 및 완성차 제조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사업 건의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산 e-모빌리티 본격 양산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등 9개 계속사업, 3개 신규사업 등에 총사업비 2832억원을 들여 기술·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e-모빌리티 시장의 공급 생태계를 주도하고 한국형 뉴딜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해 '전남도 e-모빌리티 보급·확산 중기계획(2019-2022년, 240억)'에 따라 올해 초소형전기차 187대, 전기이륜차 312대, 농업용 전기운반차 606대 등 총 1105대와 완속충전기 100대도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20일에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윤병대 정무부지사 주재로 e-모빌리티 관련 전문가와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산업 육성 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내외 e-모빌리티산업 현황 및 관련 기업 생태계 분석,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전략, 전남 e-모빌리티산업 육성방안 등에 중점을 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축산 연구개발 공모

14개 과제 국비 527억 확보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업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인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축산현안 대응 산업과 기술 개발' 공모 등에서 14개 과제에 선정돼 국비 527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재 대학·기업체·연구소,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올해 121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527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는 원예와 축산분야로 나뉜다. 원예 분야는 6개 과제 276억원으로 ▲스마트 온실용 지능형 농작업 로봇개발 82억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육묘 표준화 기술개발·실증 71억원 ▲영양기반 시설 과제류 정밀 생육·생체 특성 측정 및 진단기술 개발 39억원 ▲고생산성 온실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기술 개발 27억원 등이다.

축산분야는 6개 과제 214억원으로 ▲축산 생력화 로봇개발 66억원 ▲축우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 44억원 ▲2세대 돼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 32억원 ▲축산 복합환경 지능형 동적제어 기술 개발 27억원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전KDN

에너지로 사람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요양원 헬스케어 밴드 서비스



중소기업 무료 보안컨설팅



KDN 디지털 IT용 지원



지역 꿈나무 육성 로봇프로그래밍교실



스마트 댐 운영